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에 '활력'

학부모 입소문 '뜨거운 관심'

군산시, 5년간 342억 규모의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

군산시가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농촌지역의 365생활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8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강인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지난해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21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농촌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부와의 협약으로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342억 규모의 군산시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했던 농촌정책들을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서,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종합계획에 따라 투자를 집중해 농촌지역의 365생활권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농촌협약을 위해 지난 2021년 농촌협약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년간 농촌지역 발전계획인 '군산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단일생활권의 5년간 발전계획인 '군산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됐으며, 농식품부와 여러 차례 자문회의와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342억원(국도비 219억 포함) 규모의 농식품부 사업(지방아양사업 포함)에



대해 최종 지원 확정을 받았다.

이번 농촌협약을 통해 '도시와의 공존·공생·공감·공유'로 채우는 3/6/5 행복한 농촌 생활속(SOC)이라는 비전으로 수립한 '군산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의 정합성과 거점(상위·중위·하위) 기능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농촌과 도시의 행복의 동행, 더불어 누리는 활력농촌 군산!' 실현을 농촌생활권 활성화 목표도 설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공부의 명수' 5월 1일 정식오픈... 1:1 학습지원

교육도시로 도약을 선포한 군산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부의 명수'의 본격적인 운영준비를 마쳤다.

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공부의 명수 실시용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시연회를 개최하고, 제공되는 학습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픈 전, 최종점검 했다.

오는 5월 1일 출시되는 '공부의 명수'는 1:1 온라인 수업을 통해 군산시 초중학생의 학습을 도와 교육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공학습플랫폼이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공부의 명수가 제공하는 2가지 학습서비스인 '학습질문방'과 '온라인튜터링'의 접속방법과 학습이 이뤄지는 시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연회에 참석한 학부모는 "시에서 과학적으로 양방향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공부의 명수가 기대돼 참석했다"며 "멘토구성과 수업교재, 레벨테스트 등 궁금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오픈 예정인 서비스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안심이다."고 말했다.

시연회 후 강인준 군산시장은 "공부의 명수는 우리시 초중학생 1만5천명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학부모가 교육 때문에 타지역으로 유

학을 고민하지 않도록 만든 학습지원 서비스"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만큼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부의 명수'의 대표 서비스인 온라인 튜터링은 중학생과 멘토가 1:1로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중 학생이 선택한 과목으로 온라인 튜터링에 참여하는 멘토들은 서류 및 면접 문제풀이 시연을 통해 자격과 실력을 확인해 선발했다.

5~7월에 수업에 참여하는 1기 참여 학생은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인기에 모집 마감일 됐으며 2기 모집은 오는 7월, 공부의 명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학습질문방은 매주 월~목, 매일 4시간씩 수학 영어, 과학 분야 풀기 어려운 문제를 질문방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문제풀이와 명쾌한 개념학습을 지원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진로와 자기주도학습법 상담이 이뤄지는 '명수 상담소'와 영어프리토크 '영어소통방'이 열린다.

한편 5월 1일 정식 오픈하는 '공부의 명수'는 군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이용 가능하며, 검색포털에 '공부의 명수'를 검색하여 바로 접속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교육지원과(454-2582) 또는 고객센터(1533-183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즐거운 과학 이정모와 유쾌한 답소

익산시는 이정모 전)국립과천과학관장과 함께 비록사저에서의 답소(이하 미담)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는 3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정모 관장은 유명 웹툰 '미담'에서도 까칠한 캐릭터 털보 과학자로 등장한 명실상부 과학계 설법이다. 과학계의 거간꾼을 자칭, 그는 대중에게 어려운 과학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과학 통역자라 불리고 있다.

JTBC '차이니스 클래스'에서 '별종의 역사로 알아보는 지구 온난화의 위험 신호'를 재미있게 풀어냈으며, 허쩌다 어른'에서는 '과학 참 만만하다'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강연한 바 있다.

30일 오후2시 세계유산 미륵사지 연못 앞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이번 미담에서는 '별자리와 공룡'에 대해 알고 싶은 몇 가지'를 주제로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제2회 수박놀이 축제 용안생태습지서 열려

익산시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제2회 수박놀이축제'가 용안생태습지 용안면 난포리 313-15 일원에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익산시 수박연구회가 주최하고 익산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9년 1회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올해 다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박 품평회, 수박조각(카빙)전시회, 수박 시식 및 판매, 각종 체험? 이벤트(수박 수학, 수박꽃이 피었습니다, 수박비누, 향수만들기, 애플수박, 화분만들기, 수박씨 멀리 날리기, 수박빨라리기 등), 축하공연, 노래자랑 등이 있다.

특히 축제 기간 중에는 고당도, 고품질의 수박을 시종보내 저렴하게 판매,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익산 수박은 주변 지역보다 이른 4월부터 본격 출하를 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국가예산확보전 돌입... 세종현지 전략사수

정현을 시장, 국·소·단장 등... 50대 중점사업 추진상황 점검·대응전략 모색

익산시가 행정수도 세종시 현지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예산편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익산시의 예산확보 노력을 알리고 현안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부처 예산안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제 출장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 사업부처장, 담당자 등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국가예산 확보 현지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 간 경쟁이 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대응 수립을 토대로 예산 유치전 당일 현장에서 전략적 사고로



철저히 무장해 부처별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회의에 앞서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을 초청해 정부 예산 확보 활동에 대한 매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국가예산수립 실무관점에서 부처단 계 50대 중점사업에 대한 국가예산확보 추진현황과 정부 부처별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갖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산 특산물 홍보·판로개척 추진

군산시가 최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수산 특산물(홍어, 대구, 기타 수산가공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참가 등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역량 강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새로운 수산물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 HMR(가장간편식), 밀키트 제품 품을 활용한 수산물 가공 거점단지 입주업체들의 해물탕 갑오징어 볶음 등이 현재 마켓컬리와 코스트코 등 각종 홈쇼핑 등에 납품이 늘어 온라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홍어, 대구, 바닷꽃게 등 지역특화수산물 개발을 위해 난류성 어류에 대한 조사분석 및 특화 상품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과 함께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 박람회 참가, 라이브커머스 등 특화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축개장을 앞두고 있는 수산물종합센터에 '군산홍어 판매단지'와 '전문식당'을 도입운영할 계획으로 지역 특화 수산물 전문식당을 활성화해 군산시 수산시장의 특색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수산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2023년 서울 국제 수산식품 전시회(4.27~29), 전라북도 수산물 직거래장터(5.19~20), 국회의사당 군산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5.24)에 참가해 군산 홍어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시식회 등을 통해 인지도 향상 및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영세한 지역 수산유통·가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본격적인 국내시장 프로모션 및 마케팅 다각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수산물 수산물 생산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생산자, 가공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대, 글로벌대학30사업 추진 본격 선포

국립군산대학교가 28일 "글로벌대학 30 사업추진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작업에 들어갔다.

28일 교내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사업추진 선포식에는 강태성 군산대학교 총동문회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김미정 군산시 부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부의장, 문승우 전북도의원, 강태창 전북도의원,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광중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한광 전주MBC 대표이사,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양용원 WBS원음방송 본부장, 강대식 군산대학교경영관리자과정 총동창회장, 전근환 군산대학교 기획관리처장 등 내·외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군산대학교는 지역과 협업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대학으로서

의 위상을 갖춘다는 글로벌대학30 청사진을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 세계화의 중심에 앞장설 것"을 선포하였다.

특히 상하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비롯하여 중국 절강성외국어대학, 중국 절강해안대학, 중국 길림체육대학, 일본 수지쓰대학, 일본 이와테대학, 미국 보이스 주립대학, 미국 푸에블로 커뮤니티대학, 미국 타코마 커뮤니티 대학 등 8개 해외지재 대학이 국립군산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사업추진을 축하하는 영성을 보내 이채를 띠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